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①



# 총림의 창설, 석가모니 이후 불교사 최대사건

<叢林>

## 백장청규로 틀을 갖추다

중국의 선은 인도에서 건너온 보리달마(?-495)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큰 교단(종파)으로 발전한 것은 8대(代) 법손인 마조도일(709-788)과 그의 제자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에 의해서다.

마조도일은 조사선(祖師禪)을 완성시킨 선승으로 '평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다(平常心是道)' '그대가 애써 찾고 있는 부처는 곧 그대의 마음이다(即心是佛)'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선을 일상 속으로 끌어 들인 장본인이다.

보리달마 이후 선은 4조 도신(580-651)과 5조 홍인(601-674) 그리고 6조 혜능(638-713) 때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여전히 천대·회암·정토·율종·법상(유식)종·구사종·밀종(밀교)·삼계교 등 8종에 비하면 열세였다.

역사서에서는 도신과 홍인의 문하에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수행자 집단으로서, 선종은 이른바 당(唐) 초기에 거론되고 있는 8종의 대열에도 끼지 못했다. 아직 선불교는 독자적인 선원이나 사원, 또는 참선 도량이 없는 상태였다. 선승들은 주로 율종 사원이나 또는 여타 사찰에서 당우 한 채를 얻어 거주했다. 말하자면 더부살이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승들이 율종 사원의 더부살이에서 독립하여 비로소 하나의 교단(종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백장 선사(720-814)가 선원의 정관인 '백장청규'를 제정하여 공포한(700년대 말경) 이후의 일이다. 달마로부터 300년 후, 9대째에 이르러서다. 이에 대하여 송대의 한림학사 양역(楊億, 974-1020)은 '선문규식(禪門規式)'에서 "선원이 독립하여 행해진 것은 백장회해로부터 시작되었다(禪門獨行, 由百丈之始)"고 밝히고 있다.

백장회해가 집대성한<백장청규>는 선원총림(叢林)의 생활규칙과 운영방침, 그리고 각자가 지켜야 할 법규와 소인(지책) 등을 제정한 선원 최초의 정관이었다. 오늘날 하

나의 사단법인을 운영하는데도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백장청규는 선종 총림의 법전(法典)이었다. 이 백장청규를 바탕으로 비로소 선불교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어 백장선 백장사에 선종 최초의 총림인 백장총림을 창설하게 된다.

"덕망이 높은 이는 장로(長老)이고, 교화에 뛰어난 선지식은 방장(方丈)이다. 불전(佛殿)은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法堂=說法堂)만 세운다. 수행자는 모두 승당(僧堂)에 거처하도록 하고, 앉는 자리는 수계의 연차에 따른다. 상당법어는 5일마다 한번씩 하고, 아침저녁으로 모여 법문을 듣는다. 공양은 아침에는 죽(粥), 점심에는 밥(飯), 두 끼만 먹는다. 보청법(普請, 율력)을 시행하여 자급자족하며 상하 구별 없이 모두 일한다."

이상이 백장청규의 대강이다. 선원의 생활규칙인 백장청규의 출현과 '백장총림 창설'은 선불교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이것은 곧 선종 교단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당말 송대에 이르러 중국 불교계를 휩쓸게 되는 서막의 종(鐘)이기도 했다.

사실 선불교는 백장회해 이후에는 공전 절후의 발전을 거듭한다. 곧이어 일어난 당 무종의 회창폐불사건(845-847)은 불교계의 판도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종파는 거의 다 멸절(滅絶) 상태에 빠지고 오직 살아남은 종파는 선종과 정토종뿐이었다. 특히 산악에서 노동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권위주의를 부정하면서 선불교는 무종 사후 점점 조야(朝野)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일반 지식층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불교에 귀의했다.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유(韓愈, 768-824)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선에 투신했다. 기존의 불교가 교학적, 권위적이었던, 선불교는 서민적이었으



백장청규는 선종 총림의 법전(法典)이었다. 이 백장청규를 바탕으로 비로소 선불교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 기존 교단으로부터의 독립

며 수행법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응시였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특히 선승들이 쏟아내는 탈속무애한 선시(禪詩)에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탄성을 질러댔다. 문인들이 투항하자 일반은 바람이 쓸고 가듯, 당말 송초는 오로지 선종 일색이었다.

도원(道源)의 <전등록>(1004년 저술) 6권 '백장회해장(章)'에는 한림학사 양역(楊億, 974-1020)이 지은 '선문규식(禪門規式)'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고규서(古淸規序)'라고도 하는데, 백장선사가 제정한 청규의 원형을 전하고 있는 자료다. 거기에는 백장회해의 말을 빌려 당시 선불교가 독립하게 되는 전후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소실(少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종은 조계혜능 때까지 대부분 율종 사원에 거주하였다. 비록 별도로 선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설법이나 거주하는 것이 여전히 법규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과제로 남아 있었다. 조사의 도(道)를 널리 퍼고 미래에까지 그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어찌 아함 등 기타 부파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대소승의 계율에 국한하지 말고 선원 독자적인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소승의 계율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마땅히 넓게 고찰, 절충하여 올바른 규범을 제정하고자 한다. 선원에 맞는 청규가 있어야만 올바르게 수행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롭게 틀을 세워 따로 선종사원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육조혜능 때까지만 해도 선승들은 주로 율종 사원에서 더부살이로 살았다. 그러나 율종에서 행하고 있는 법규와 설법은 선원과 맞지 않았다. 율원은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표어처럼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율원은 율장과 경전 탐구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선원은 조사어묵의 탐구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했다. 계율을 공부하는 율종과 마음의 존재를 규명하는 선(禪)은 그 목적이 같았을지라도 방법은 달랐던 것이다.

독탈무의(獨脫無依)한 절대적인 경지, 무소유, 무집착의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선승들의 입장에서 더부살이는 언젠가는 해결

## 불전 세우지 않고 법당만 세운다

해야 할 과제였다. 사건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애감 같은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독자적인 교단과 수행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별도로 선원을 두었지만, 설법이나 거주하는 것이 법규에 맞지 않아서 항상 마음에 과제가 있었다"는 말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기존 교단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반을 확립하기 까지는 늘 도전과 두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였다. 많은 대중이 공주(供住)하는 총림에서 의식주(衣食住) 문제는 그 어떤 과제보다도 큰 문제였다. 물론 기존 교단(종파)처럼 세력가들이나 신자들의 기부에 의존할 경우, 그것은 익숙한 일로서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선승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속적인 율종을 끊고 독자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명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시주 단련에도 적지 않은 공(功)과 시간을 쏟아야 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 없었겠더냐. 율종이나 교종 등 기성 교단을 그대로 추종하는 꼴이었다.

백장선사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방안이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보청법(普請法, 作務, 노동, 율력)이었다. 보청은 세력가들이나 신자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토지를 개간하여 자급자족하겠다는 의지로서, 이는 기존 교단과 확연히 차별되는 혁신적인 제도였다. 또한 이것은 인도불교가 전통적으로 벌레나 곤충 등 살생을 이유로 농경(農耕)을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구교단의 개혁이요, 선종교단의 자급성이었다.

94세로 입적할 때까지 숭선수법했던 '일

■ 회창폐불  
승려 20만명 환속

회창폐불(會昌廢佛). 당 무종(武宗) 회창 연간(841-848)에 일어난 폐불사건. 무종은 원래 도교를 신봉하였는데, 제위에 오르자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3년(843) 조칙을 내려 수도와 주군(州郡)에 각각 1개소와 몇 몇의 승려만 남기고 26만명을 환속시켰으며, 4만개의 사원을 헐어버렸다. 불상, 동종 등은 주전(鑄錢)토록 했다. 당시 사원은 4만 4천개, 승려는 26만 9천여 명이었으니, 무려 90%가 없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파는 거의 멸종할 정도였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선종과 정토종이었다. 무종이 사망 후 선종은 점점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하여 당말 오대에는 오직 선종 일색이었다.

일부작, 일일불식'의 보청정신은 전법(戰法)에서나 쓰이던 배수진으로서, 여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백장총림이 왕실이나 세력가들의 율력으로 부터 벗어나서 깊은 산악에서 고고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청 공적(功績)적 노동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또 이것이 회창폐불의 돌풍에서 살아남게 되는 모멘트이기도 했다.

그런데 앞의 백장청규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法堂=설법당)만 세운다"는 것이다. '불전(佛殿)'이란 곧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대웅전이다. '불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주지(住持)가 수행자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공간,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교육장인 법당만 세운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법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강당(大講堂)이다. 그는 "주지(住持)는 곧 불조(佛祖)로부터 친히 정법을 부처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으로서 불전을 대신한 것은 곧 주지(住持)의 권위를 불(佛)과 동격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산문(一山)의 주지인 방장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법을 부처 받은 현신불(現身佛)이므로 불상 즉 등신불을 모시는 당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원총림에서 방장은 곧 부처님을 대신하여 교화하는 살아 있는 부처, 생불(生佛)이었다. 조사선의 기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 윤창희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 연재를 시작하며

역사상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당송시대 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 년 전 그 시대, 선승들은 어떻게 참선, 수행했으며, 하루 일과는 어땠으며, 참선은 하루에 몇 번 했고, 한 번에 몇 분기량 좌선했는지? 정말 경전이나 어록은 보지 않았는지? 조실, 방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자를 지도했는지? 그리고 선원총림의 생활상과 소인, 역할, 가람의 구조, 선당 내부의 구조 등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이 연재의 목적이다.

더불어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은 얼마나 원형이 남아 있는지도 비교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불교이면서도 선의 법전인 청규의 모습(당시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면 일본 영평사 같은 곳은 90% 이상 남아 있다. 당시 생활상과 용어, 가람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선의 고장인 중국은 50% 정도 남아 있다.



윤창희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해인사 강원 13회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수료. 논문으로는 '해방 이후 역경(譯經)의 성격과 그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파궤', '성철스님의 오매일여관 비판'(불교평론 36호), '무자화두십중병에 대한 고찰'(한암사상 3집), 지은 책으로는 <양초보 선편사 되다> 등.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뜻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달아야 전의 소리가 나오는 저지 천재주 부러민굴이 어떤!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대요: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명장)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은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단박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전시점: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